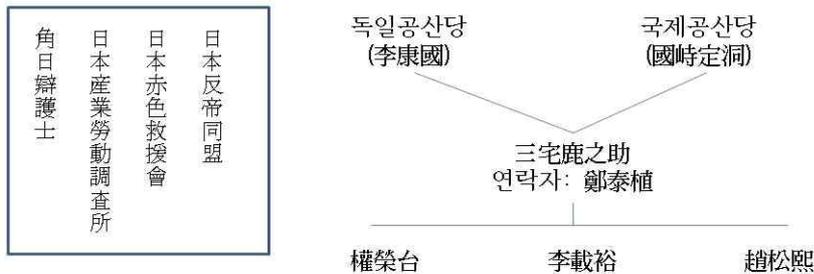


200-69. 城大 三宅 교수의 적화공작사건

■ 1934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총독부 경무국장, 일본내무성 경보국장, 경시총감, 각도지사, 각 파견원 및 경성지법 검사정에게 송부한 문건 수록

- 서대문경찰서에서 검거, 송치한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사건의 수사중 그 사건과는 별 개의 계통, 즉 상해국제공산당 遠東部員 金丹治의 지령을 받아 鮮內 赤化工作에 종사한 金炯善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활동중인 제4차 공산당사건 관계 출옥자 李載裕의 잔당이 학교, 공장 등에 조직을 확대하여 검거하였으나 서대문서에서 도주하고, 연루자를 조사하던 중 京城帝國大學 助手 鄭泰植을 체포, 조사한 바 東方勞力者共産大學을 졸업한 權榮臺를 검거하게 되었다.
- 京城帝國大學 財政學講座 擔任 三宅鹿之助는 權榮臺 및 鄭泰植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어 東崇洞 25番地의 大學官舎를 수색하고 三宅을 조사한 바, 앞서 서대문서에서 도주한 李載裕를 마루 밑에 숨겨 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李載裕는 다시 도주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다.
- 三宅 教授는 검사국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피의자와 분리 취조하였다. 조사에서, 李載裕·金丹治·金炯善 등과 연락을 취하고 경성을 중심으로 공장에는 적색 노동조합, 학교에는 반제동맹, 영등포·인천지역에는 지역 적색노동조합, 양평·여주군 내에는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공작을 하고, 鄭泰植을 통하여 三宅 教授와 접선하며 장래의 운동방침 수립을 위하여 광범한 각종 정세 및 과거운동에 대하여 토의하고 과거에 대하여 비판 등을 했음이 밝혀졌다.
- 그리하여 1934년 1월 21일 이후 계속하여 관련자를 검거, 조사하여 보고한 문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系統圖



(李載裕, 權榮臺 등 조직의 계통과 당사자의 성명 등이 3매 있으나, 생략한다)

2. 관계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등

三宅鹿之助 부부를 비롯하여 119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기소 34명, 기소유예 13명, 기소중지 8명, 불기소 64명으로 되어 있다.

3. 주요 관계자의 약력

李載裕 등 41명의 경력이 기술되어 있다.

4. 犯行事實

- 1) 三宅鹿之助의 경력 및 독일 유학중 독일공산당 국제당원 片山潛 등과의 관계
- 2) 이 사건 중심 인물인 三宅·李載裕·權榮臺·鄭泰直과의 관계
- 3) 三宅教授의 검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취조상황
 - ① 검거의 경위

- ② 歸鮮後의 행동
 - ③ 李載裕와의 관계 범죄
 - ④ 權榮台와의 관계 범죄
 - ⑤ 기타의 범죄
5. 三宅의 실천운동에 대한 장래의 포부
 6. 李載裕 中心의 활동상황
 - 1) 學生運動
 - 2) 赤勞運動
 - 3) 反帝運動
 - 4) 양평, 여주 양 군에서의 赤農運動
 7. 權榮台 중심의 활동상황
 - 1) 權榮台 입국까지의 경과
 - 2) 그 후의 활동상황
 8. 鄭泰植 중심의 활동상황
 - 1) 城大讀書會
 - 2) 경성법학전문학교 내의 학생운동
 - 3) 보성전문학교 내의 활동
 - 4) 龍谷女學校 내의 활동
 - 5) 京城專賣支局 義州路工場에 대한 활동
 - 6) 기타 각 공장, 상점, 학교에 대한 책동
 9. 부록
 - 1) 三宅·李載裕가 협의·결정한 각종 정세 토의
 - 2) 『프롤레타리아』 (창간호)
- 부록 1의 '정세 토의'는 화로 밑에 은닉하였기 때문에 불에 타서 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관련자들이 고학력이며 李康國·李鉉相 등 해방 후의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도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64명의 불기소처분자와 기소유예자 13명 등 계 77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볼 때, 공산당 활동으로 인한 치안 유지법 위반보다는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취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기소중지자는 李載裕·李康國·李鍾泰·姜文永·金仁淑·金根培·許均·金革徹 등 8명으로, 외국에 있거나 하여 검거하지 못하였다.